

교육의 총체적 붕괴

- 대학총장 책임론 -



박 영 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우리의 교육이 총체적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지식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교육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대학총장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교육은 대학교육에 귀일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조기유학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한다. 낮에는 학교를 가야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니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고, 학부모들은 이중의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한 고생 끝에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영어하나 제대로 못하여 세계화 시대에 낙오될 수밖에 없으니 한국에서의 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되면 학력의 차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눈높이가 다른 학생들을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한 반에 묶어 놓으니 수업이 진행될 수 없다. 어떤 학생에게 쉬운 것이 다른 학생에게는 어렵게 되고, 그 역도 성립하게 되어 수업의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제자에 대한 사랑이나 스승에 대한 존경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은 어떠한가? 물론 대학도 예외 지대일 수 없다. 오히려 대학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대학생의 과잉공급으로 대학이 청년 실업 문제의 원천이 되고 있고, 고등학생 수의 감소로 지방대학들은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그 존립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대학원이 활기를 잃은 채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졸업생들 중 우수한 학생일수록 외국 대학원으로 나가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수가 될 수 없는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원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 학생들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수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로 채워져 있어, 교수들은 신이 나지 않고 학생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의 대학원이 활기를 잃은 채 공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국의 교수들은 우수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 그의 연구력이 강화될 수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교수들은 그보다 못한 학생들을 조교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학들이 자기가 길러낸 박사는 교수로 채용하지 않고 외국의 박사를 교수로 채용하는 일은 자기모순이요 자기기만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교수로 채용하지도 않을 박사를 왜 그렇게 많이 길러내는지……. 한국의 대학들이 대학원을 설치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특별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교육의 포기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한국 교육은 총체적 붕괴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모든 교육자들에게 돌려야 할 것이나, 그 최종적 책임은 대학총장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왜 총장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우선 총장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 없이 현상에 편승하여 왔으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상에 묻혀 현상의 율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총장들은 학생정원을 늘리고 건물을 짓는 등의 양적 교육을 위주로 하였을 뿐 학문의 수월성에 열성을 다하지 않았다. 허부구조 구축에 열심이었을 뿐 교육의 내용 개발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으로 대학의 총장들은 한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대학의 발전만이 아니고 대국적 견지에서 몇몇 대학만이라도 세계적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에 인색했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사회가 변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가 대형의 노동 중심의 사회였다면 지식사회는 소형의 지식 중심의 사회이다. 따라서 대학도 변해야 한다. 대학이 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날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사회적 교육에서 지식사회적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대학들이 큰 대학 지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키우는 대학에서 다지는 대학으로 되어야 한다. 시설에 투자하는 대학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대학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수와 학생이 만나는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수를 바라볼 수만 있을 뿐,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는 강의만 하는 교수가 아니고, 학생을 만나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 강의방식도 강연식 일방적 강의가 아니고, 토론식 쌍방향 강의를 되어야 한다. 받아놓는 시험지와 리포트가 아니고, 돌려주는 시험지와 리포트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으로, 책임지는 교육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총체적 붕괴상태에 있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교육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교육을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